**취업 성공 후기**

< 국제통상학과를 통해 이룬 취업 성공 스토리 >

영어영문학과 4학년 나경훈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영문학과, 국제통상학을 복수전공하고, 현재는 동원산업 해외영업직, 다우기술 모바일쿠폰팀, 서브원 영업직을 합격하여 현재는 LG 유통이었던 서브원에 입사해 있는 나경훈이라고 합니다. 이 후기를 읽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3,4학년으로 앞으로의 취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준비들을 했고,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학교에 편입으로 들어온 편입생입니다. 저는 원래 승무원을 꿈꾸며, 영어를 공부하고 단순히 세계적인 트랜드에 관심이 많아 국제통상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한정이 많습니다. 저도 이 정도는 선배님들이나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들어서, 저는 학교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외활동, 봉사활동, 프로젝트 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상곤 교수님을 첫 3-1에 국제무역실무라는 과목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서 승무원이라는 꿈을 접어두게 된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무역직이라는 것에 매료되었고, 교수님의 조언들에 따라서 해당 직무에 대해서 알아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주대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하기에 취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였던 파란학기제의 ‘수출창출 주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 형식으로 기업에서 직접 무역 프로세스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실무를 하는 것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는 것은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취업을 하는데 점수 자격증 이런 것은 안 중요하다. 이런 진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활동, 자격증은 많을수록, 학점이 높을수록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고 높은 것보다는 방향성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3-2까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를 찾아 그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에도, 면접을 할 때에도 조금 더 이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인턴 경험으로는 교육직, 해외영업(무역직), 국내영업, 구매직 등을 진행해 봤습니다. 4학년까지 저의 전공 분야 내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고, 저는 국내 영업을 먼저 마스터하고, 해외영업 및 주재원까지 나가고 싶은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도 만족을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여서 이 회사에서 최고가 되거나 다른 회사로도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회사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았기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적어도 4-2 전에 읽으신다면 자신 있게 조언 드리기에 밖에 나가시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학교라는 범위는 너무 좁고 배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업군 직무를 경험하셔서 보다 회사에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무역학과, 영업, 구매 등의 직무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한상곤 교수님에게 상담을 받고 해당 정보를 많이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아주대 분들 항상 파이팅하시고 좋은 결과 항상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지금도 후배 몇 분들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 교수님 통해서 전화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별 볼일 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